

BTS, '블룸버그 50' 선정... 유일 한국인

한국 가수로서도 최초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올라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다시 차트 1위 차지해
미국서 전례없는 성공 거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블룸버그 50'(The Bloomberg 50)에 선정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활약한 인물들을 추린 격인 '블룸버그 50' 기사를 게재하고, 방탄소년단을 포함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제롬 파월 등 주요 인사, 글로벌 기업 로열더치셀 CEO 벤 반 뷰어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도나 스트릭랜드, 미국 팍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이자 이번 50인 중 유일한 한국인이다. 블룸버그는 "2018년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금융, 정치, 기술 및 과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인물을 선정해 올해도 두 번째



그들 방탄소년단 제이홉, 뷔, 지민, 슈가, 정국, RM(왼쪽부터)이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2018 AAA)가 열린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BTS

K-pop boy band Entertainment

● In June, BTS became the first Korean pop band to top Billboard's album charts with Love Yourself: Tear, and then it had another No. 1 in August with Love Yourself: Answer, achieving an unprecedented level of success in the U.S.

BTS owes its popularity to its willingness to address social issues, mental health, and politics, despite being in a genre often painted as bubble gum. Tickets for its first worldwide stadium tour sold out in minutes, another sign that audiences are ready for bands with Korean sensibilities. Based on BTS's success, Big Hit Entertainment, which manages the band, is expanding into movies, games, and original YouTube content; in March it said revenue more than doubled last year, to \$86 million. —Soohee Kim

발표한 블룸버그 50에 실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을 뽑은 이유는 "방탄소년단은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첫 K팝 밴드다. 8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차트 1위를 차지해 미국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인기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장르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

정신 건강과 정치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해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방탄소년단의 첫 월드 스타디움 투어 티켓은 몇 분 만에 매진했다. 이는 세계 관객이 한국 감성을 지닌 밴드를 받아들이기 준비가 됐다는 또 다른 신호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성공을 바탕으로 영화, 게임 그리고 오

리지널 유튜브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3월에는 회사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8600만 달러(963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블룸버그 50'은 블룸버그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도 수록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지난 8~9일 타이완 타이완 위안 국제 야구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아시아 투어를 이어갔다고 전해졌다. /뉴시스

가수 윤민수, 모친도 빛 시비

"도의적 책임 질 것"

부모가 빛을 갖지 않았다는 시비에 휩싸인 보컬그룹 '비이브' 멤버 윤민수(38)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7일 "보도 전까지 가수 본인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후 사실 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아들이로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끝까지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민수 모친 김모씨가 30년 전 고향 친구인 강모씨에게 빌린 1000만 원을 지금 까지 갖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래퍼 마이크로닷(25) 부모의 사기 시비로 시작해 연예인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돈을 떼였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최리, 황금촬영상 신인여우상 수상

배우 최리(23)가 '제38회 황금촬영상 영화제'에서 신인여우상을 거머쥐었다.

최리는 최근 서울 P호텔 카라디움홀에서 열린 이 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감독 최성현)의 '수정' 역으로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 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 감독협회가 주최한 행사다. 촬영감독들이 그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최리는 2015년 영화 '귀향'의 '은경'으로 데뷔했다. 이 영화로 2016년 '제53회 대중상영화제' 뉴라이징상, '제11회 아시아모델 시상식' 모델특별상 뉴스타 연기자상 등을 차지했다.

최리는 "꼭 하고 싶던 수정을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기회를 주신 '그것만이 내 세상'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시스

배우 장혁·서예지, 명예경찰 됐다... 민감룡 청장과 위촉식

경찰과 함께한 방송·제작진 간담회 개최
장혁, OCN 드라마 '보이스'에서 형사 무진혁 역
서예지, '무법 변호사' 변호사 하재이 역 맡아

배우 장혁(42)과 서예지(29)가 명예 경찰이 됐다. 장혁은 경사, 서예지는 순경이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두 사람에게 대한 명예 경찰 위촉식과 함께 '2018 경찰과 함께한 방송·제작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혁·서예지와 함께 영화감독·PD·작가 등 방송·영화 관계자 28명이 참석했

고, 민감룡 경찰청장 등도 자리했다. 장혁은 지난해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보이스'에서 형사 '무진혁'을 맡아 열연했고, 서예지는 최근 tvN 드라마 '무법 변호사'에서 정의로운 변호사 사무장 '하재이'를 연기했다. 이날 행사는 사이버안전·과학수사 및 무공화 회의실 등 경찰 시설을 견학하고, 영화·드라마를 통해 경찰들의 활약을 아름답게 담아준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 경찰과 제작진의 간담회와 함께 올해 각종 콘텐츠에서 경찰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뉴시스



순창이 참 좋다. Get Your New Life with Suncheon

여동행,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